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견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광양시민에게 받은 사랑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한다

(주)광양교통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으로 안전운행 최우선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 인식이 노사화합 도출

광양 시내버스는 유일한 존재가 광양교통이다. 하여 시민과의 밀착도는 100%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로지 광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양권에서 광양교통은 인력 운송수단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지만 광양교통 역시 운송 수지 타산이 원만하지 않아 어려움이 크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라는 특수성과 운수업만이 가지는 안전성 측면에서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는다. 벽지 노선이 많고 인구가 적은데도 밀집돼 있지 않고 산재해 있다 보니 수익창출에 애로가 있는 것이다. 운송권역은 광양시를 비롯해 경남 하동 화개장터 일원과 순천시 일부구간에 이른다.

주요 고객인 장.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친절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락을 함께한 동지나 다름없다. 고객들의 인생사가 광양교통에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이다. 57 대의 버스와 123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광양교통은 광양지역 일지리정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견인차다. 사업의 특성상 연중 무휴로 불철

주야 광양권역 주민들의 안전한 여행과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단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고객을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생명존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무사고 안전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고객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친절하게 모시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차된 시간을 엄수해 제 때 고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시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을 고객과의 약속이자 서비스 사업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100% 무결점 예방비로 고장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없애고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교통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기업이 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적 책임을 경영력의 원천으로 삼고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철학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광양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운수업계의 기둥으로 우뚝 섰다.

사정이 이러하니 종사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안전운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근로시간을 단축해 기사들의 피로도를 낮춰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오늘날 광양교통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두가 팔팔 뭉쳐 난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던데서 비롯하고 있다.

특히 광양교통이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하나 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회사의 발전이 곧 조합원의 발전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일치단결해 매진하고 있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가 하나돼 희망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광양교통 내년으로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는 광양교통이 지금까지의 발전에 더해 안정적인 도약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남규 기자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노사상생 견인할 것”

이순심 대표

▶고용안정과 장시간 근로개선은 잘 이뤄지고 있는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 개선으로 고용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운수업의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무말할 필요가 없다. 직원들이 가장 편안한 심신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사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생각하?

-20년 가까이 이르는 과정에서 아주 우여곡절이 없었을까는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많은 종사원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도 다르고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노동조합의 인격과 수준을 믿는다. 더불어 잘 사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노조와 조합원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 생각한다. 노사간 격의없는 대화와 단체활동을 통해 종사원들과 믿음을 두텁게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기에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 존재가 친절과 안전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광양 시민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함께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당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사가 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 양으로 힘이 되어준 노조와 조합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듯이 앞으로 회사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당부한다. 회사 없는 조합원 없듯이 조합원 없는 회사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현장에서 승객을 대하는 서비스 질의 정도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곤 한다. 결국 회사

“양보와 배려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한다”

박인성 노조지부장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안전한 교통 선진문화의 원칙은 양보와 배려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도 이와 같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즐거운 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측과 어떤 문제의 해결에 있어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노조를 이끄는 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기본원칙은 단결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있다 확신한다. 이에 모든 행사와 교육시간에 저의 모두발언은 언제나 모두가 참여하고 요구할 때 변화는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저는 모든 행사의 건배사를 '우리는 할 수 있다'와 '함께 하자'로 하고 있다.

▶조합원 단합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매달 생일자 점심식사 및 간담회를 열어 축하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고충처리로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지며 매분기 노사정 친선 축구대회를 열어 체력단련과 노사정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시내버스 승무사원으로서 자긍심 부여에 노력하고 있다.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의 정도는

-개선발전 진행 중이라 본다. 과거 소정의 부재를 늘 말해 왔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니 노사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노사가 서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어 지역사회에 모범적 노사 파트너십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조합원들의 현장에서 안전한운행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내버스 승무사원이 되도록 현장의 위험요소 개선정비,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더 노력하겠다. 또한 열악한 현실적 복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남규 기자